

# 간디학교 풍경화 그리기

제 출 자 : 오 성 진

지도교사 : 유 아 림

##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간디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풍경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작품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얻는 것이다. 나의 작품과 무엇이 다르고 무슨 색을 써야 작품에 어울리는지 알기 위해 BNK 경남은행 갤러리 '한일 우호전'에 다녀왔다. 그리고 선정한 풍경 5개를 선정하고 스케치 및 채색작업을 시작했다. 간디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를 부탁했고 대부분의 평가는 '색감이 좋다' 등의 긍정적인 내용이었고, '잔디묘사가 아쉽다.' 같은 평도 있었다. 전문가 평가 역시 좋은 평이 나왔다. 비록 수채화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이 시작한 논문이지만 예상 밖에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한다.

## 목 차

### I. 서론

1. 논문의 동기
2. 논문의 목적
3. 진행계획

### II. 본론

1. 풍경화의 개념
  - 1) 풍경화란?
2. 풍경화의 종류와 특성
  - 1) 풍경화의 종류
  - 2) 풍경화의 특성
  - 3) 풍경화의 구도
3. 작품구상
  - 1) 간디학교 주변 관찰
  - 2) '한일 우호전' 탐방
  - 3) 작품 스케치
  - 4) 수채화 진행 과정

### 5) 작품설명

4. 작품 전시
5. 작품 알리기

### III. 결론

1. 작품 평가
  - 1) 간디인 평가
  - 2) 전문가 평가
  - 3) 나의 평가
2. 논문의 성과와 한계

<고마운 분들>

<참고 문헌>

<부록>

1. 실패작들
2. 작품일지

# I. 서론

## 1. 논문의 동기

나는 초등학생 시절 그림을 배웠었다. 근데 학교에 온 이후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풍경화라는 미술의 한 종류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 본 풍경화를 보고 인상이 깊어서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3년 동안 기숙학교 생활을 하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싶었다. 기껏 그려봐야 남의 그림을 따라 그리기만 했던 나는 풍경화를 접하고 난 뒤로 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봐왔던 학교를 직접 그려보고 사람들에게 논문을 기회로 풍경화를 알리고 싶다.

## 2. 논문의 목적

이 논문 기회로 내가 학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내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봐왔던 가장 아름다웠던 풍경을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알리고 싶다. 또한 이 논문을 통해 다시 그림을 그리고 완성한 성취감을 얻고 싶다.

## 3. 진행계획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미술수업으로 구도, 채색하는 법, 구도 등을 공부했다. 다양한 채색과 무슨 형태에 풍경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시회를 알아보았다.

- 1) 간디학교를 관찰하여 주변 풍경을 고르고 5곳을 선정한다.
- 2) 선정한 풍경을 주제로 스케치 및 채색작업을 시작한다.
- 3) 그린 그림을 간디인들 대상으로 전시한다.
- 4) 간디인과 전문가에게 평가를 받는다.

## II. 본론

### 1. 풍경화의 개념

#### 1) 풍경화란?

도시의 환경이나 집밖에 풍경 그리고 산과 들 계곡과 숲 등과 같은 자연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을 풍경화라고 한다.<sup>1)</sup> 사람과 동물 등이 들어간 풍경화도 있지만 본 논문에서 풍경화란 건물과 자연을 배경으로 그리는 풍경화이다.

### 2. 풍경화의 종류와 특성

풍경화는 재료와 색에 따라 다양한 색을 칠해 완성 할 수 있다. 종류로는 수채화 풍경화, 유화 풍경화, 파스텔, 풍경화, 아크릴 풍경화가 있다.

#### 1) 풍경화의 종류

- ① 수채화: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 밝은 색깔을 초반에 써나가면서 후반에 덧칠을 하면서 어두운 색깔을 써나간다. 최대한 번지지 않게 그리는 것이다. 수채화는 물을 이용해서 색깔에 농도를 조절한다.
- ② 유화: 유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리는 그림이다. 수채화 와 는 다르게 검은색, 흰색 등을 많이 사용한다. 색깔을 진하게 해서 그린다. 건조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작업이 이어져도 물감과 덧칠한 물감을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다. 무겁고 중후 한 것이 특징이다.
- ③ 파스텔화: 여러 색깔을 사용하며 그린다. 손가락과 휴지를 사용해서 번지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림기법을 사용한다. 색은 다양 하지만 가루가 떨어져서 정착액 사용한다.
- ④ 아크릴화: 건조시간이 유화보다 빠르기 때문에 빠른 손을 필요로 한다. 물을 적게 하면 유화 같고 많이 하면 수채화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붓의 표현이 많다.

#### 2) 풍경화의 특성

우리 주변에 다양한 풍경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 날씨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특히 계절에 따라 보여 지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다. 또한 똑같은 풍경이라도 아침과 점심, 저녁에 보여 지는 것이 다르다.

---

1)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 백과>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계절감과 원근감을 들 수 있다.

① 계절감: 날씨와 계절에 따라 같은 풍경이라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예시]



※ 08년도 발표작인 김규창 화백의 동검도의 여름과 김세견 화백의 겨울풍경 등이 있다.

② 원근감: 거리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물체를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표현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물화나 인물화에는 없는 특징이다.



[예시]

※ 위 그림처럼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나타내는 것을 원근감이 라고 한다. 자료출처 [담우미 미술학원]

### 3. 풍경화의 구도

풍경화에서 구도란 그림에 위치를 뜻하는 말이며 그 종류로는 대각선 수평 구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 ① 수평선 구도: 들판, 바다 등 넓고 안정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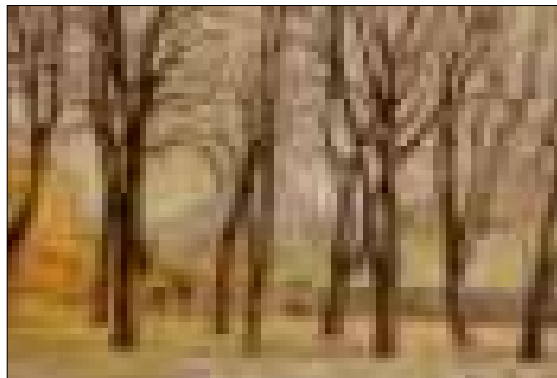
[예시] 자료출처 [네이버 지식 in]



※ 모네 양귀비가 있는 들판

- ② 수직 구도: 나무, 숲 등 상승되고 장엄한 느낌을 낼 수 있다.

[예시] 자료출처 [ <http://art2me.org/images/hwehwa/gudo/gudo.htm> ]



사진에 있는 그림과 같이 나무의 상승감을 나타내는 느낌을 주는 것을 수직 구도라고 한다.

③ 대각선 구도: 골목길이나 빌딩 등 집중 된 느낌이다.

[예시] 자료출처 [<http://art2me.org/images/hwehwa/gudo/gudo.htm>]



골목길이나 가로수 길을 그릴 때 집중을 줄 수 있는 구도이다.

④ 동적인 구도 :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는 구성의 구도이다.

⑤ 호선구도: 호수, 강, 바다 등 운동감과 원근감을 느낄 수 있다

[예시] 자료출처 [<http://art2me.org/images/hwehwa/gudo/gudo.htm>]



좀 더 부드러운 느낌에 원근감을 줄 수 있다. 강, 바다, 호수 등에 많이 넣는 구도다.

### 3. 작품구상

#### 1) 간디학교 주변 관찰

	<p style="text-align: center;">생태화장실</p> <p>가장 처음 고른 풍경으로 명암이 마음에 들어서 골랐지만 그림으로 밝고 어둡기를 표현하기 어렵고 내 실력으론 한계가 있어서 아쉽지만 포기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태 앞 풍경</p> <p>앞에 두 건물은 괜찮지만 운동장에 밝은 부분이 너무 세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내가 잘 살리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현관</p> <p>햇빛에 비쳐 보이는 부분이 아름다웠지만 나무형태가 정확하지 않고 땅이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게 됐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태 가는 길</p> <p>그림소재로써는 완벽했고 풀색이 밝고 어둡기가 정확했지만 내가 직접 색으로 표현 할 수 있다거나 재대로 표현할 수 없어서 포기하게 됐다.</p>

멘토반 가는 길



건물에 색감 밝고 어둡기 등 좋은 요소가 많았지만 그리게 되면 너무 복잡하고 그림이 재미가 없어서 포기했다.

기숙사 컨테이너



전체적으로 밝고 산의 색깔이 아름답지만 직접 그려보니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포기하게 됐다. 이 풍경을 포기하게 된 것은 너무 아쉽다.

기숙사 올라가는 길



산과 그림자가 아름다워서 고르게 되었지만 배경이 너무 심심하고 그림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외했다.

미술실



미술실과 산이 같이 보이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선택하게 됐다. 그리기도 쉽고 색깔이 정확해서 논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소강당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올라가던 곳이다. 노을이 저있는 풍경이라든지 낮에 올라 왔을 때는 앞에 보이는 산과 건물이 아름다워서 논문에 넣기로 결정했다.

학교현관



가장 많이 봐오던 풍경이고 변화된 학교에 현관을 봤을 때 햇빛에 비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서 논문에 넣게 됐다.

사랑채



가장 좋았던 추억이 많이 있는 장소이다. 밤에 볼 때는 몰랐지만 낮에 보니 나무에 가려져있는 사랑채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논문에 넣게 되었다.

미술실 앞



‘첫 번째 작품이었던 미술실을 다른 시점으로 그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른 풍경이다. 밝고 어둡기가 명확하며 나무에 색 뒤에 보이는 산이 아름다워서 내 논문에 넣게 되었다.

## 2) '한일 우호전' 탐방

여러 색감과 표현방법, 밝고 어둡기를 알아보기 위해 BNK 경남은행 갤러리에 다녀왔다. 전체적으로 그림 모두 밝고 어둡기가 명확하고 색감과 표현방법 역시 모두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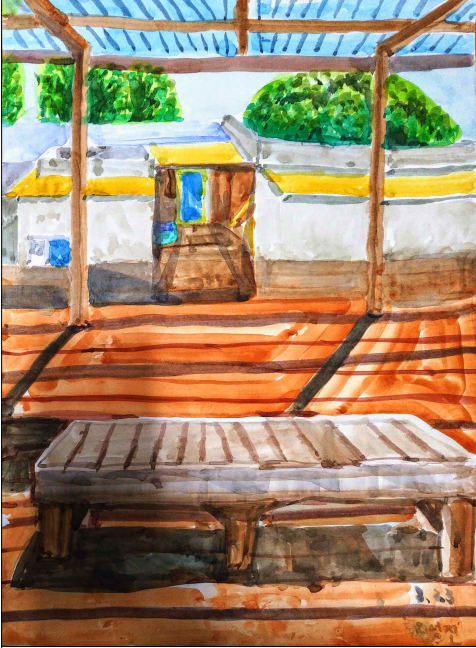
## 3) 작품 스케치

미술실 스케치



첫 작품인 미술실을 스케치 한 것이다. 미술실과 뒤에 보이는 산을 보며 스케치 했다.

소강당(스케치 한 모습이 없어 완성작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자에 모습 그림자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스케치를 했다.

학교현관 스케치



학교현관을 보며 한 스케치이다. 나무와 건물에 특징을 최대한 살려 스케치를 했다.

사랑채 스케치



나무에 가려진 사랑채를 한 스케치이다. 잔디 묘사와 나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면서 스케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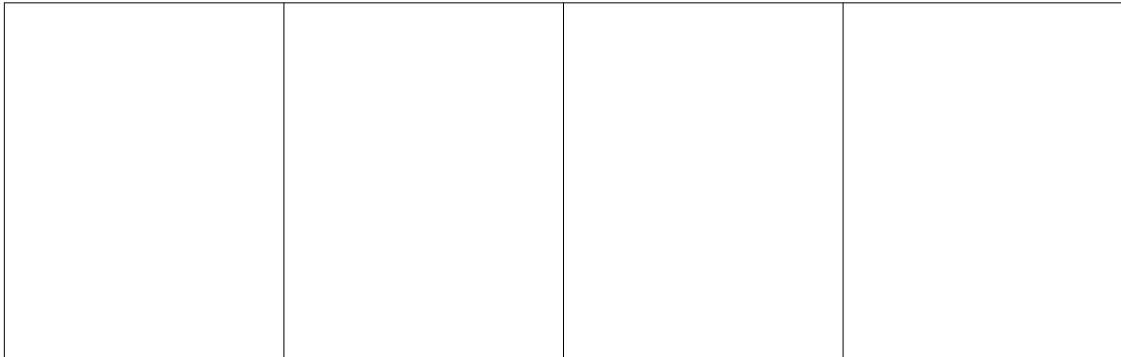
미술실 앞 스케치



대각선 구도와 계단 창문 등을 신경 써서 스케치한 작품이다.

#### 4) 수채화 진행 과정

##### (1) 학교 현관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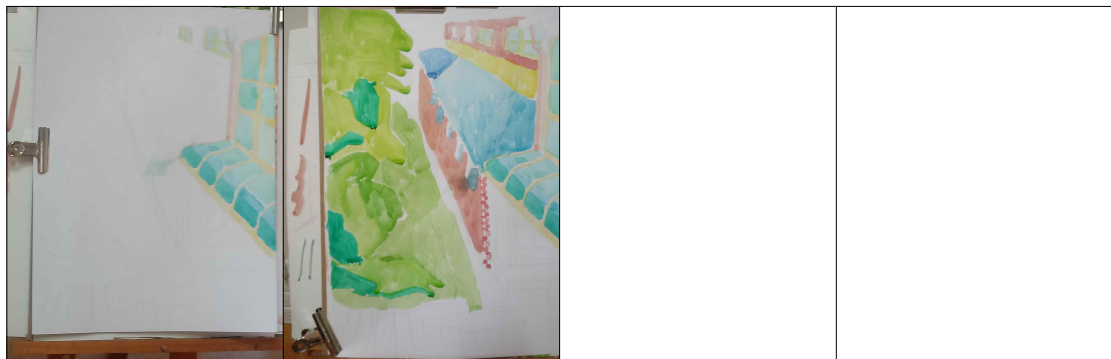
학교 현관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나무의 명암과 반사되어 비쳐 보이는 벽의 모습이 추가되고 있다. 이제 점점 학교 현관의 모습이 보인다.

##### (2) 사랑채 진행 과정



사랑채의 진행 과정이다. 완전히 사랑채 같다고 볼 수 없지만 명암처리를 하면서 본래 사랑채의 모습에 비슷해져 가고 있다.

##### (3) 미술실 앞 진행 과정



눈에 직접 보이는 색으로는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색깔이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칠해봤다. 늘 정해져 있는 색으로 칠하기보다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색을 칠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5)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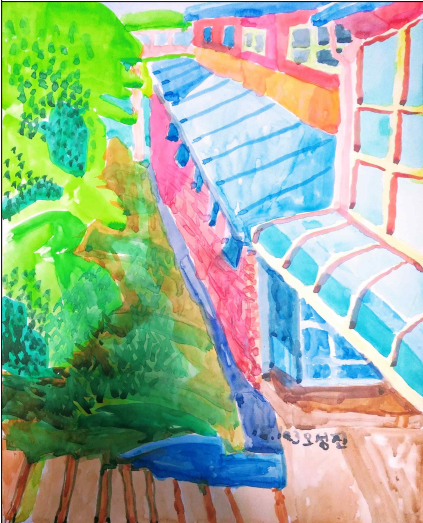
	<p style="text-align: center;">미술실</p> <p>첫 번째 작품인 미술실은 논문 쓰기 전부터 항상 봐오던 풍경이고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처음 해본 작품이니 부족한 점도 많지만 성장에 발판이 된 작품이다. 그림에는 나의 두려움, 성취감, 기쁨 등에 감정이 나타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소강당</p> <p>작품이 잘 안 그려지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올라가서 앉아있던 곳이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다. 사람이 아닌 풍경으로 위로받았던 신기한 경험을 한 곳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현관</p> <p>3년 동안 봐온 풍경이고 친숙하다. 특히 햇빛에 비쳐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학교를 같이 다닌거나 다름없기에 내 논문에 넣고 싶었다.</p>

사랑채



사랑채는 내가 가장 좋았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설렘 가득한 기억과 밝았던 내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다.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많은 공간이다.

미술실 앞



처음에 그렸던 미술실을 다른 시점으로 그린 작품이다. 대각선 구도와 창문묘사 원근감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다.

#### 4. 작품 전시

나의 성장 과정과 작품의 변화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 작품의 순서와 사람들의 시선 등을 고려해서 도서관 계단에 전시를 했다.

우드락을 잘라서 작품과 같이 붙여 도서관 입구 쪽에 전시하려 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분산되고 다섯 작품을 넣기에는 공간이 너무 비좁기도 하고 작품이 잘 보이지도 않아서 도서관 계단 쪽에 전시를 했다. 확실히 잘 보이고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 5. 작품 알리기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풍경을 그린 작품을 카드뉴스로 만들어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와 댓글을 달아주었다.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린 학교에 아름다운 풍경들을 알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안녕하세요. 저는 간디 학교에 재학 중인 오영진 이라고 합니다. 재학 학교에는 3학년이 되면 아게 되는 논문이라는 교육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 아게 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 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고 많은 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p>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b>학교원장</b></p> <p>3년 동안 봐온 풍경이고 인숙이다. 두어 햇빛에 비껴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학교를 같이 다닌 거나 다름없기때 내 눈앞에 남고 있었다.</p>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b>사랑제</b></p> <p>사랑제는 내가 가장 좋았던 추억이 있는 공간이다. 오랜 기억과 밝았던 내 모습이 보이는 작품이다. 아라모로 좋은 기억이 많은 공간이다.</p>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b>쇼강당</b></p> <p>작품이 잘 안 그려져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울라기게 앉아있던 곳이다. 기분이 안 좋기도 안고 앉아있으면 기분이 나아지게 됐다. 사랑이 아닌 표정으로 위로 받았던 순간만 경연할 만하다</p>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b>미술실</b></p> <p>몇 번째 작품인 미술실은 논문 쓰기 전부터 양장 벽 오던 풍경이고 가장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하다. 처음 예쁜 작품이나 부속만 접도 알짜만 생각에 발판이 된 작품이다. 그림에는 나의 두려움, 생각과, 기쁨 등에 감정이 나타나 있다.</p>	<p><b>간디 학교 풍경와 그리기</b></p>  <p><b>미술실 앞</b></p> <p>처음에 그렸던 미술실을 다른 사람으로 그려 작품이다. 태극권 구도와 영문묘사 원근감이 주를 이루는 작품이다</p>

### Ⅲ. 결론

#### 1. 작품 평가

##### 1) 간디인 평가

(1) 작품에 전체적인 느낌과 아쉬운 점이나 하고 싶은 말

- 밝은 색이 많아서 그림이 보기 좋다.
- 색감이 정말 예쁘다.
- 수채화로 잘 표현했다.
- 잔디묘사가 아쉽다.
-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 사물과 주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묘사가 필요할 것 같다. 관심과 관찰 등이 필요하다.
- 학교 풍경이 포근하게 느껴진다.
- 자기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멋진 작품 잘 봤어요.
- 본인만의 느낌이 따뜻하고 친근하게 다가왔다. 수채화가 아닌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작품도 보고 싶다.
- 판타스틱
- 베리 베리 굿!
- 성진군 고생했음

(2) 제천간디학교 5학년 유한울 작품 평가

오성진 학생의 논문 작품 잘 봤습니다.

오성진 학생은 본인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을 수채기법 중 하나인 알라 프리마 (Alla Prima) 기법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제천간디학교의 미술실, 소강당, 사랑채 등의 공간들을 풍경화로 그려냈는데요, 공기 원근법(색채 원근법), 투시도, 소실점, 눈높이 등 풍경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이번 논문 작품에서 잘 표현해냈습니다.

사실 수채화는 알고 보면 제일 어렵기도 합니다. 먼저 수채화의 정의부터 좁혀보겠습니다. 수채화를 넓게 말하면 물로 녹여 쓸 수 있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을 통틀어 말합니다. 먹, 동양화 물감, 카세인 물감, 과슈, 포스터 칼라도 수채화고 심지어 아크릴 물감도 물로 희석해서 그리기에 수채화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채화라고 하면 투명수채화를 이야기합니다. 투명수채화는 우리가 흔히 접해볼 수 있는 팔레트에 굳혀 놓은 후 물에 녹여서 칠하는 방식의 그림입니다.

투명수채화는 대부분 빠르면 유치원 시절, 늦어도 초등학교 시절의 미술수업 시간에 접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작하기가 쉬울 뿐 제대로 쓰기 가장 어려운 그림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성진 학생은 16살의 나이에 처음 시도해본 수채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본 풍경의 느낌을 매우 잘 표현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예술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나 예술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에너지를 열어주는 해방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예술화하고 사회를 예술화하는 미래적 과제는 무엇보다 먼저 해방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과 세계 사이의 깊이 있는 관련을 추구하는 것이며, 어떠한 미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소통방향’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문 이후로도 오성진 학생의 멋진 작품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2) 전문가 평가

※ 전문가 평가는 간디학교 전 미술선생님 김태진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 작품에 느낌, 부족한 점 위주로 평가를 부탁 드립니다.)

- 첫 번째 그림은 먼 산에 채도만 낮추면 아주 좋을 것 같다.
- 두 번째 그림은 색상과 구도 모두 좋다.
- 세 번째 그림은 하늘색 채도만 낮추면 좋을 것 같다
- 네 번째 그림은 구도가 좀 답답하고 단순해서 풍경을 좀 더 그리면 좋겠다.
- 다섯 번째 는 왼쪽 앞 나무들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뒤편 연두색 부분을 색을 가라앉히면서 묘사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 전체적으로 구도 색상 표현력이 모두 신선하고 좋다.

## 3) 나의 평가

이번 논문을 통해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림 실력도 늘었다. 안 하던 미술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수채화라는 미술 장르도 처음 접해봤다.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해서 하는 것도 적었는데 이번 기회로 열심히 할 수 있었다. 내가 만약 초등학교 때 이후로 열심히 했었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시작한 걸 다행이라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수채화이고 아무 대책도 없이 시작했지만 예상외로 엄청난 결과도 있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논문을 완성 못 하고 계속 그림만 잡고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다 완성해서 작품 전시회도 무사히 한 것 같다. 방학 동안 제정신 아닌 상태에서 논문을 잡고 있었는데 이 정도 완성작이 나왔다니 내가 보기에 믿기지가 않는다. 이런 정신을 잡고 논문을 쓴 나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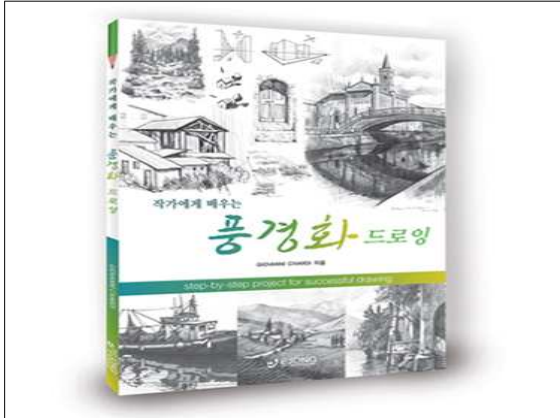
## 2. 논문의 성과와 한계

2학년 때 처음 수채화라는 장르를 접하고 나서 초등학교 때 미술을 했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시작했던 것 같다. 원래부터 소질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맞지만 많이 쉬고 있었던 상태라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힘든 점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논문 계획서 발표 끝나고 아무것도 안하고 놀기만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살짝 후회되기는 하지만 논문주제를 변경할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힘들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드백도 주고 조언도 줘서 어떻게든 마무리 했었던 것 같다.

내가 꾸준히 미술을 해왔다면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 같다는 후회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열심히 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논문이 아니었으면 평생 그림 안 그리면서 살았을지도. 논문이 끝나도 그림은 열심히 그리면서 살 것 같다. 논문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방황하던 나에게 제대로 그림을 그리고 배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성장 할 수 있고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참고 문헌>



참고 문헌은 지오반니 시발디의 '작가에게 배우는 풍경화 드로잉'을 읽었다. 생각보다 도움은 크게 된 것 같지 않다.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책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논문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은 얻을 수 없었다.

## <고마운 분들>

같이 논문 쓴 자유 분반 친구들!!

방학 때 내 얘기 들어주고 조언해준 수민 누나, 재하형 !!

수채화 가르쳐주신 진보배 선생님!!

논문 피드백과 얘기도 들어주신 아름쌤

항상 있어 줘서 고마운 부모님

있으니까 쓰는 우리형

재밌게 해주는 공소반 친구들

평가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논문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 〈부록〉

### 1. 실패작들



네 번째 작품인 사랑채를 그릴 때 생긴 실패작이다. 풍경화에 기본인 밝은 색깔들을 먼저 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두운 색깔들을 먼저 써서 생긴 실수이다. 기본만 잘 지키면서 했다면 이 작품도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기본을 잊어버린 것 같다.

## 2. 작품일지

### 5월 2일 논문일지

오늘은 딱히 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있는 거라고는 아름 쌤 과 상담한 정도? 인 것 같다. 가정학습 끝나고 돌아오면 풍경화에 대한 공부 좀 해와야겠다.

### 7월 1일 논문일지

무 빙 과 여러 일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학교로 들어간다. 내가 학교에서 논문을 잘 쓸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 빙 가기 전에 그럴 장소는 다 정했고 그리기만 하면 된다. 이번 집중 식 때 내 논문을 그려볼 생각이다.

### 7월 2일 논문일지

집중 식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 시작하자마자 나는 위로 올라가서 미술실 풍경을 그렸다. 다 그리고 보니 내가 왜 이 논문을 하는지 알 것 같다. 시작하자마자 50% 정도 완성한 것 같다. 열심히 하면 완성 할 것 같다.

### 7월 3일 논문일지

오늘도 그냥 미술실 보이는 돌담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렸다.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렸다. 그린 걸 보니 어느 정도? 는 한 것 같다. 나중에 와서 또 그려야겠다.

### 7월 4일 논문일지

전날에는 미술실을 그린 거고 이번에는 미술실 뒤에 있는 학교건물을 그리기로 했다. 학교건물이 창문이 너무 많아서 그리기 너무 귀찮았다. (진짜 너무 아픴) 손가락 부러지는 줄 알았다. 이따 와서 또 그려야겠다.

### 7월 5일 논문일지

드디어 미술실과 학교 주변 풍경을 다 그렸다. 창문 때문에 손이 너무 아프다. 진짜 손가락 나가는 줄 알았다. 스케치는 다 끝냈으니 수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난감하긴 했지만 미술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다. 지금까지 한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이해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미대 방식이라고 하니 그려려니 했다. 미대 방식은 이해하기 많이 힘들다. 앞으로 공부 좀 많이 해야겠다.

7월 6일 논문일지

전날 일지에 깜빡하고 안 한 게 하나 있어서 이거 먼저 얘기하고 해야겠다. 전날 미술 선생님이 붓질하는 연습이랑 어울리는 색깔 맞춰보라고 숙제를 하나 내주셨다. 어제는 저녁 먹고 계속 그것만 했다. 힘들다. 집중식 끝나기 전날이라서 빨리빨리 완성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겠다. 전날에는 미술실 주변과 학교건물 색칠을 절반 정도 했다. 이번에는 뒤에 있는 산과 밝고 어둡기를 표현하고 세밀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 처음 해보는 수채화라서 좀 모자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7월 7일 논문일지

드디어 집중 식 수업이 끝나는 날이다. 내 논문은 아직 다 완성하지 못했다. 하려고 하니 물감으로 명암 주는 거랑 어울리는 색깔 찾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래도 뭔가 색칠하는 게 뭔가 재밌다. 산이랑 명암표시 하는 게 제일 어렵다.

7월 13일 논문일지

그전까지 많이 하긴 했지만 일지를 깜빡하고 안 써서 그동안 뭘 했는지 자세히 얘기하겠다. 7월7일부터 13일까지 붓질 연습이랑 어울리는 색깔 찾는 연습을 했다. 붓질하는 거는 어느 정도 알겠지만 색깔 찾는 게 제일 어렵다. 많이 배워야겠다. 기술적으로 손 봐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오늘도 색칠연습 하다가 들어가야겠다.

7월 14일 논문일지

오늘도 미술실에서 붓질하는 연습이랑 색칠하는 연습을 했다. 원래 같으면 나가서 노는 건데 놀고먹고 하고 싶지만 집중하는 게 도움이 되니깐 방학 때는 쉬어야지

7월 15일 논문일지

오늘은 방학식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너무 좋다. 탐방 가고 학교 가서 그림 그려야겠다. 앞으로 조금조금 쓸 거다. 학교에 왔을 때 써야겠다.

7월 25일 논문일지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 먼저 도착해서 쌤 들 먼저 만나 뵙고 그냥 내가 그리는 곳을 둘러보았다. 그럴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열심히 그려야겠다. 다 둘러보고 현호랑 좋은 이네 집 갈 생각이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다.

7월 26일 논문일지

학교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다. 내가 그리고 있는 풍경은 소강당 풍경이다. 처음에는 많이 지우는 걸 반복했지만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 잘 풀리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되는 느낌이다. 완성된 스케치를 보니 잘 된 것 같기도 하다. 색칠은 탐방 다녀오고 솔피 전수 기간에 하기로 했다. 내일 잠시 학교 들렀다가 집 가야겠다.

7월 27일 논문일지

오늘은 일어나는 대로 준비하고 밥 먹고 학교에 현호랑 조금 쉬었다가 미술실에서 스케치 한거 잠깐 수정하고 좀 쉬었다가 가야 할 시간이 다 돼서 덕산으로 걸어갔다.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 뿌듯하고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아 좋았다. 탐방 갈 때 다시 쓰도록 하겠다.

8월 9일 논문일지

오늘은 탐방 가는 날이다. 가는 곳은 마산에 있는 BNK경남은행 갤러리이다. 정말 설렌 마음으로 들어갔다. 생각보다 엄청 커서 놀랐다. 기대가 많이 됐다. 1층부터 천천히 둘러보았다. 1층은 일본인화가 분들이 작품전시 한 곳이었다. 궁금해서 천천히 둘러봤다. 역시 작품들은 기대 이상이었고 그 중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은 그림이 있다면 탐이 보이는 풍경과 자전거라는 작품이다. 밝고 어둡기가 명확하고 나뭇잎 묘사가 디테일 했다. 가장 멋있고 잘 그린 그림이었다. 그렇게 1층을 뒤로하고 2층 한국인 작가 분들이 그린 작품을 전시 하는 곳이다. 그중에서 의령풍경과 지리산 자락이다. 소박하면서도 정겨운 느낌이 나는 그림이었다.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8월 20일 논문일지

일지를 가끔 써서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은 덕산에 있는 화실에 가서 진 보배 선생님 수채화 관련해서 가르침을 받기로 했다. 처음 가는 거라 기대 많이 된다. 일단 스케치한 그림 가져와서 색칠하기로 했다. 처음 해봐서 떨린다. 좀 힘들긴 해도 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 내일은 오늘 보다 열심히 해야겠다.

8월 21일 논문일지

버스가 잘 안 와서 덕산 까지 걸어갔다. 많이 더웠다. 그래도 화실은 시원해서 다행이다. 어휴 오늘은 일찍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좀 볼품없어 보이지만 아직 초기 단

계라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진보배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니 잘 그려지는 것 같다. 나름 실력이 늘어가는 것 같아 좋다.

8월 22일 논문일지

역시 오늘도 화실에 도착해서 열심히 색칠을 했다. 근데 점점 칠하다 보니 종이에 칠할 때마다 물감이 탁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종이에 스케치하고 다시 또 색칠을 했다. 근데도 여전히 똑같아서 완전 새 종이에 다시 그렸다. 오늘은 스케치만 하다가 끝났다. πππ

8월 23일 논문일지

어제 3번째 스케치를 통해 완성된 그림으로 수채화 작업을 했다. 그림자 표시와 색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할 수 있었다. 점점 완성되어 간다는 생각이 든다.

8월 24일 논문일지

오늘은 세 번째 작품을 본격적으로 색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칠하다 보니 그림이 살아나고 있다. 좀 칙칙해 보였는데 나무와 배경을 칠하니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것 같다. 나무기둥과 대청마루 줄도 굵고 그림자 표시도 하니 그림이 완성 되었다. 후우 이제 3개 남았다.

8월 25일 논문일지

논문일지 오늘은 피곤해서 잠만 잤다. 아침 9시에 자서 밤 11시에 깼다 내일 가서 그려야겠다.

8월 26일 논문일지

오늘은 딱히 한 게 많이 없긴 하지만 늘 하던 붓 연습이랑 색칠 연습만 했다. 손목 터질 뻔

8월 27일 논문일지

도저히 집중을 못 하겠다. 집 다녀와야지

9월 3일 논문일지

오늘은 집에서 돌아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쉬었다가 미술실로 들어가서 색칠연습

좀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색칠 하는 건 좀 부족한 것 같다. 좀 하다가 네 번째도 해야겠다.

9월 6일 논문일지

3일 동안 딱히 한 게 없어서 적지 않았다. 오늘은 세 번째 풍경 스케치를 했다. 열심히 해야겠다.

9월 11일 논문일지

오늘은 세 번째 작품 스케치를 했다. 고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려서 스케치는 완성했다. 예전에는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요새는 1시간도 안 걸린다. 논문 하면서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다. 나름 대단 하다 생각한다. 작가 수준은 아니어도 엄청 늘었다. 논문이 끝나도 꾸준히 배워서 그림 그리면서 살아야겠다.

9월13일 논문일지

14일 발표 날 ppt를 살짝 손보고 있다. 계속 올려서 혼날 듯

9월 14일 논문일지

오늘은 3학년들끼리 모여서 중간발표 점검을 했다. 애들 전부 잘 한 것 같다. 나도 피드백 좀 받아서 수정해야겠다. 열심히 해야지 뭐

9월 15일 논문일지

오늘은 화실에 가서 3번째 작품을 고치고 왔다. 나무 그림자랑 문 자세히 표현하는 거랑 나무 그림자를 새로 추가했다. 그림이 살아나는 것 같아 좋다.

9월 16일 논문일지

오늘은 네 번째로 그릴 풍경을 고르고 있었다. 원래 가기 전에 고르긴 했지만 주제가 너무 부실하고 복잡하기만 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시 고르고 있다. 그중 4번째 풍경 고르기가 제일 힘들었다. 기숙사 사랑채를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찍고 괜찮은 사진을 계속 주려갔다. 1시간 넘게 찍은 것 같다. 내일은 연우랑 일찍 가서 논문 하기로 했다.

9월 17일 논문일지

오늘은 4번째 풍경 사랑채를 스케치했다. 늘 하던 대로 스케치는 잘 됐다. 너무 기분

좋다. 예상 질문준비 해야겠다.

9월 18일 논문일지

오늘은 중간발표 날이다. 새벽까지 죽어라 짠 질문은 안 나 오고 피드백도 별로 없었다. 그래서 조금 화가 났다. 개인 프로젝트 소리 들은 것도 억울한데 진짜 화가 난다. 하나하나 정성 들인 거고 방학 때 무슨 정신상태로 잡아가며 쓴 건데 물론 설명하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화는 난다. 개인 프로젝트 소리 안 들을 만한 걸 해야겠다.

9월 21일 논문일지

오늘 병원 갔는데 맹장염 일 수도 있다고 한다. 느어어어어억 배 아프다

9월 27일 논문일지

다행히 맹장염은 아니다.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걸 왜 달고 살아야 하지

9월 30일 논문일지

잘 쉬다가 왔다. 중간에 본문도 좀 쓰다가 왔다. 중간발표에 여파가 큰 것 같다. 작품 마저 끝내야겠다.

10월 2일 논문일지

오늘은 네 번째 작품 수채화 작업을 했다. 2개 정도 날리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잘돼서 다행이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세세한 거 좀 고치면 완성 가능할 것 같다.

10월 3일 논문일지

오늘은 오디농장에 다녀왔다. 그림 그리다가 중간에 튀어 나가서 정신이 없었다. 너무 힘들다. 빨리 끝내고 완전히 작품 마무리하고 편하게 본문 써야겠다. 5시간 정도면 모두 마무리될 것 같다. 드디어!! 작품이 끝났다. 울 뻘 했다. 아프고 짜증 난거 다 견디고 끝냈다. 끝내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제 본문만 쓰면 끝이다.

10월 4일 논문일지

힘들어 살려 줘어 ㄱ

10월 5일 논문일지

오늘은 완성한 작품들 전부 전시 준비를 했다. 드디어 작품이 다 끝나는 건가 싶고

속이 편하다. 드디어 본문만 남았다.

10월 6일 논문일지

드디어 작품발표를 하는 날이다. 하필 내가 도서관 첫 순서다. 너무 부담된다.ㅏㅏ  
ㅏㅏ 사람들이 몰려올 때 너무 긴장됐다. 말을 못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다행히 생각나는 대로 잘해서 다행이다. 질문도 안 어려웠고 답변 잘 할 수 있었다. 다행이다. 평가도 좋은 말만 가득했다.

10월 9일 논문일지

오늘은 작품설명 썼다. 개 힘듬

10월 11일 논문일지

지금 현재 본문 50% 정도 한 것 같다. 나 좀 짱

10월 14일 논문일지

지금은 새벽 1시.....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거의 끝나 가니깐 좀만 더하면 놀 수 있다!

10월 16일 논문일지

논문 쓰다 죽을 것 같다. 살려줘